

# 6월의 안테나

노영한

(본지 편집국장)

## 소독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한국 소비자 연맹(회장 정광모)은 계란에서 심한 약품냄새가 난다는 소비자의 고발에 따라 이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지난 5월 20일 농수산부에 했고 이 내용이 TV로 보도된 바 있다.

농수산부는 즉시 가축위생연구소를 통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년초부터 전국에 전파되고 있는 전염성후두기관염(ILT)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소독약을 양계장에서 난좌 등에 무질서하게 과용한 것으로 추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양계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의 대부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들이기

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한 계란에 심한 약품냄새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계란을 기피하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양계업자는 값싸게 영양분이 많은 계란을 생산함에 있어 노력함은 물론, 품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양계산업의 발전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계산업을 생업의 수단으로 하는 것 외에 현재 가장 값싼 동물성 식품인 계란을 생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양계장에서 소독약의 약효에 대한 과신으로 지시된 사용량을 초과하는 과용이나 용법을 지시된 대로 시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귀찮아서 난좌를 소독수(水)에 담

근 후 충분히 건조가 되지도 않은채로 사용한다든가 하여 계란에 냄새가 오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난좌나 양계장에 분무로 소독을 할 경우에는 인축에 무해한 소독약을 사용할 것은 물론이지만 냄새가 없거나 냄새가 적은 것을 사용하고 가능한한 난좌 등은 훈증소독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만일 앞으로 한두개의 물지각한 양계장의 잘못으로 계란에서 냄새가 나고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 소비자들 계란을 불량식품으로 인식한다면 본인은 물론 전체 양계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는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신선하고 위생적이며 값싸고 영양분 많은 계란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고 소비자들 식품을 구매할 때 항상 계란을 생각하고 계란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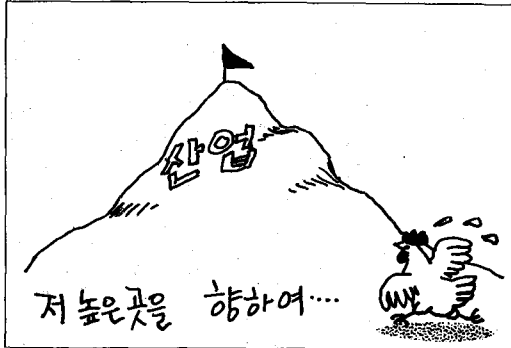


## 양계산업의 위치를 높은 곳에

정부 발표를 보면 작년말로 우리나라의 농민 수가 드디어 1,000만명 이하로 내려갔다. 이제 전체 국민중에서 농민의 수가 4분의1 정도로 감소되었고 곧 20%이하로 농촌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70년대와 같이 산업사회로 발전되어감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농민의 수는 10%이하까지도 내려가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양계 산업도 이제 농가부업에서 전업, 기업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계화됨으로써 좁은 계사에서 많은 수를 사육하는 등 과거의 토지를 이용한 농업의 범위를 벗어나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계농가의 감소와 함께 전체 양계농가의 0.69%인 4,318호의 3,000수 이상 사육 농가가 전체 사육수수의 74.31%를 사육하고 있어 이제 1,000수 이하의 농가부업 양계는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계산업이 기업화되면서 몇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양계산업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양계산물을 열등재로 생각하도록 방치하여 왔고, 정책 입안자도 양계는 항상 과잉생산이 문제이므로 생산조절만(생산 감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지 모르나 양계산업 발전의 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산위에 있는 물방울이나 바닥에 있는 물방울은 같은 물방울이지만 바닥의 물방울은 흘러다니다 증발하여 버리지만 산위의 물방울은 계곡을 흘러내리며 물레방아를 돌리고 발전소 터빈을 돌려 발전도 하고 또는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등 에너지를 가지고 항상 움직인다. 양계산업도 그 위치가 높은 산위에 올라가 있어야 더욱 빨리 발전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둘째, 우리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意味)를 부여하여야 한다. 많은 종업원이 양계산업에 투신하여 정신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불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자기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기 보다는 남이 나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산업으로 발전하면 필연적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으나 극단의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하면 그 산업도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양계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의식구조도 이에 맞게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이다.

# Fogmaster® 6208 TRI-JET® Fogger

3개의 노즐에서 안개처럼 고운  
소독약이 강하게 분무됩니다



전시장 : 서울 · 성동구 능동 246-10  
445-0212



과학축산시스템